

미국, 브라질과 바이오에탄올 협력

미국 생산량 1위에 브라질 수출량 1위 ... 브라질은 수입관세 폐지 요구

미국이 바이오에탄올의 세계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브라질에 제의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대니얼 폰맨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8월15일 Sao Paulo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세계 최대의 바이오에탄올 생산·수출국인 양국이 협력하면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브라질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니얼 폰맨 장관은 “바이오에탄올의 세계 수요를 늘리려면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양국이 협력해 바이오에탄올 가격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니얼 폰맨 장관은 8월17일 Brasilia에서 브라질 정부와 민간 에너지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바이오에탄올 분야 협력에 관해 또 한 차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미국은 옥수수, 브라질은 사탕수수를 원료로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고 있고 미국이 생산량 1위, 브라질은 수출량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니얼 폰맨 장관은 미국 정부의 브라질산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수입장벽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브라질산 바이오에탄올에 대해 1갤런(3.78리터)당 0.54달러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미국 바이오에탄올 생산기업에는 1갤런당 1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최근 수년간 지급된 보조금은 5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브라질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보조금 지급 중단과 브라질산 바이오에탄올 수입관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브라질의 항공기 생산기업인 보잉과 엠브라에르는 최근 항공기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에탄올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프로젝트는 양사가 사탕수수에서 바이오에탄올을 추출하는 기업 Amyris Brasil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IDB(미주개발은행)도 자금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국제 환경보호단체인 WWF(세계자연보호기금)가 자문 역할을 맡아 참여할 예정이다.

브라질에서는 2010년 엠브라에르를 비롯해 항공사와 바이오에너지 단체,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Abraba(브라질 바이오 항공연료 동맹)가 결성됐다.

Abraba에는 엠브라에르 외에 TAM, Gol, Azul, Trip 등 항공사와 브라질 우주항공산업협회, 설탕 및 에탄올 생산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UNICA(사탕수수산업협회), 바이오 에너지 생산기업인 Algae Biotecnologia, 아미리스 브라질 등이 참여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8/17>